

'펄펄 끓는 바다' 양식장마다 초비상

바닷물 수온이 치솟으면서 양식장마다 초비상이다.

쫄쫄 끓는 물을 줄 모르는 폭염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바닷물 수온이 크게 오르면서 연안 어패류 양식장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예년과 달리 짧은 잠미에 폭염 기세가 쫄쫄 끓이지 않아 양식장 피해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처음 전남에서 양식 중인 돌돔 수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함평군 주포항 인근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돌돔 8만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전남 함평군은 지난 17일부터 돌돔이 죽은 채 발견됐고 현재까지 8만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다. 함평 지역 바다 수온이 한때 32도까지 치솟는 등 열흘 넘게 바닷물 수온이 30도를 넘나들었다.

함평군은 정확한 폐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수산물시험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수온이 28도를 넘는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면 양식 어패류가 폐사할 가능성이 커진다.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감염성 질병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고수온이 장기화될 경우 대량폐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79억원에 달한다.

돌돔과 우럭, 전복 양식장이 밀집한 남해 지역 어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우럭 양식장을 운영 중인 권모(65)씨는 "집단 폐사가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양식장에 차광막도 설치하고 산소 공급도 하고 있지만, 쫄쫄 끓는 수온이 떨어지지 않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북 양식장을 운영 중인 함익춘(58)씨는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양식 어민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며 "양식장을 볼 때마다 혹시 나도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장 운영 어민들에게 액화산소 공급을 비롯한 사료 투여 중단, 수온 상시 모니터링 등에 나서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온이나 적조가 발생 후 '주의보'가 발령되면 종합상황실(수산정책실장)을, '경보' 발령 시 중앙수습본부(장관)를 운영해 대응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담당국장을 반장으로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현장점검관도 배치한다. 또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비 38억원을 지원하고, 2014년부터 울

함평 양식장, 돌돔 수만마리 집단 폐사 양식 어민들 "집단 폐사, 남의 일 아냐" 어류 면역력 떨어져 감염병 쉽게 노출

해까지 664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가두리 현대화와 어장제배치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국립수산물시험원은 바닷물 수온이 28도이거나 그 이상 예상될 때 주의 보를, 28도 이상이 사흘 이상 지속

되면 경보를 발령한다.

전남도는 양식어가에 차광막과 액화산소를 공급하고, 양식장 재해 보험 어업인에게 보험 부담금의 60%를 지원하는 등 피해 예방조치를 진행 중이다.

뉴스



도서관 휴식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며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상반기 불법조업 중국어선 크게 줄어...“강력대응 효과”

우리해역 침범 후 퇴거 869척서 288척...67% 감소

올해 상반기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의 지속적인 단속과 중국어선에 대한 계도 활동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4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이 올해 상반기 우리 해역 중국어선 조업실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평균 54척에서 25척으로 감소했다.

또 우리 해역을 불법 침범해 퇴거 조치한 중국어선 역시 지난해 869척에서 288척으로, 67%나 줄었다.

특히 불법조업 외국어선 중 저항이 가장 심한 무허가 집단침범어선

(일명 '뽕')은 지난 1월4일 2척이 단속된 이후 현재까지 없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감소한 이유는 서해NLL 해역에서 꽃게 성어 기인 4~6월에 맞춰 '서해도특별경비단' 경비함정을 기존 4척에서 5척으로 늘리고, 해군과 불법조업 사전 차단 활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또 중국 정부에 자국어선 불법조업 감시를 위한 중국 해경정 배치 등 불법조업 근절대책 마련 촉구와 합법 중국어선 어민 대상 준법조업 계도 활동도 도움됐다.

해경은 하반기에도 무허가 집단 침범 외국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안전조업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 교육·훈련을 통해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

영, 특별 단속 등을 통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우리 해역 진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다양한 단속 대책을 통해 외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할 것"이라며 "우리 어민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인경찰, 청년 죽어가는데 소 안전만 확인

소를 송상하는 힌두교 국가 인도에서 경찰이 소를 사람보다 우선시 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한 무슬림 청년(28)은 지난 20일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 주 알와르 지역에서 젓소를 구매해 끌고 가던 중 힌두교 폭력단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서둘러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소의 안전을 살핀 후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타타임을 가졌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

피해자의 친구(30)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 당일 젓소 두 마리를 구매해 끌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폭력배의 공격을 받았다. 그는 "걸어가던 중 갑자기 오토바이 소리와 총성을 들었다"고 사건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우리 둘다 소를 놓아주고 도망쳤다", "나는 인근 밭으로 도망쳤지만 친구는 폭력배들에게 잡혀 구타 당했다"라고 말했다.

전체 인구의 약 80%가 소를 송상하는 힌두교도인 인도에서는 거리 곳곳에서 일부 힌두교 폭력단이 가축을 실은 트럭 등을 감시한다. 자신들이 송상하는 소를 실은 것은 아닌지 검사하기 위함이다. 인도에서는 소를 도축하는 것이 불법이며, 소를 지역간에 이동시킬 때에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지역 언론은 경찰이 소의 안전을 우선해 청년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경찰이 소를 안전한 곳에 대피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논란이 일자 라자스탄 주 경찰청은 "경찰의 초동 대응에 의구심이 든다"며 "땀을 뿌려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정부도 나섰다. 인도 정부는 지난 23일 라자스탄 주 당국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며 "해당 지역의 평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가해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다.

그러나 통신은 우익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집권 이후, 인도에서는 힌두교도들이 소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무슬림 교도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증가하는데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교도소에서 재소자 2명 탈옥

멕시코 교도소에서 재소자 2명이 간수들의 도움을 받아 구한 것으로 보이는 교도관 복장을 갖추 입고 유유히 밖으로 걸어 나가 탈옥했다.

멕시코의 시날로아주 정부의 이노센테 에르네스 공공안전부장관은 콜리칸 교도소를 탈출한 이 죄수들이 22일 아침에 무려 6개의 보안 관문을 거쳐서 밖으로 걸어났다고 발표했다. 홀리안 그리말다와 카를로스 살몬이란 이름의 두 재소자는 최근에 보안이 더 엄격한 다른 교도소에서 이 곳 감옥으로 이적된 온 사람들이라고 그는 말했다.

멕시코 언론에 따르면 그리말다는 시날로아 마약 조직의 재무 담당자로 복무한 혐의가 있고, 살몬은 벨트란 라이바 마약 조직에서 주로 경찰에 대한 무차별한 살인공격을 주도한 책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스서 대형 산불로 최소 24명 사망

그리스 수도 아테네 외곽에서 발생한 2개의 대형 산불이 강풍으로 확산되면서 리조트들을 태워 최소 24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했으며 이중 11명은 생명이 위독하다.

이번 산불은 10여년 만에 그리스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이다. 불에 탄 주택 등에 대한 수색 작업이 시작되면 사망자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스 소방당국은 약 600명의 소방관들이 산불 진화에 나선 것과 함께 휴가객들이 대피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물을 뿌릴 수 있는 모든 비행기들과 헬리콥터를 다 동원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시속 80km에 달하는 강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휴가를 위한 그리스 섬들로의 출발지인 라피나항의 에반젤로스 부르누스 시장은 "강풍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면서 모든 것들을 걷잡을 수 없이 태워버리고 있다"며 "여러 곳에서 불이 동시에 일어나 눈감착할 사이에 급속히 확산됐다. 우리는 매우 불운하다"고 말했다.

그리스는 아테네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 대처를 위해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다. 스페인과 키프로스는 이미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표명했다.

산불은 수백명의 주택들과 자동차들을 불태웠으며 아테네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아테네 동부 해안으로 대피, 해군함과 요트, 어선들이 구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찍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